

## 금주 성경 말씀

### ■ 창세기 37:2~4, 18~35

- 0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 0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0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 내려 함이었더라
-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 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 지라 옷을 찢고
- 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 24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 25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 26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 교외소식

-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축복과 행복을 누리세요.
-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 매일 성경 읽기 / 성경 암송 / 청소년기도**  
주보에 수록된 매일 성경읽기와 성경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회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고등부 : 강민지, 김민준, 노강민, 박수진, 서 봄, 오지현, 오태현, 위하윤, 이종빈, 정완희, 한성결, 한태민, 한희락
- 2025년 6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올력 5.6 ~ 6.7)**  
6/4(수) - 노승현 학생    6/24(화) - 이종빈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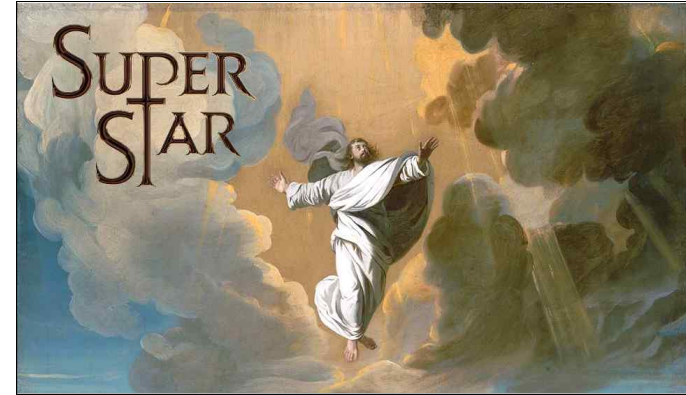
## 매일 성경읽기

| 성경            | 읽기 | 기도제목                | 기도 |
|---------------|----|---------------------|----|
| 7일(토) 로마서 15장 |    |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    |
| 8일(일) 로마서 16장 |    |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    |
| 9일(월) 잠언 1장   |    | 2.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    |
| 10일(화) 잠언 2장  |    | 3. 많은 친구들과 예배드리도록   |    |
| 11일(수) 잠언 3장  |    | 4. 학생회 임원들에게 책임감을   |    |
| 12일(목) 잠언 4장  |    | 5. 학생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    |
| 13일(금) 잠언 5장  |    | 6. 새친구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

## 찾아오시는 길 / 매역 2번 출구방향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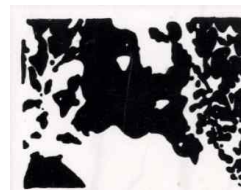


## 2025 표어 “가서 전하며 가르치고 섬기는 교회”(마 4:23)



## 주사랑교회 학생회 사명서언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 ④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자라나며
- ⑥ 학교와 학원 친구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 ⑧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의 비전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는 이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 예배 순서 (1부)

1부 오후 4시

인도: 한희락 학생회장

- ※ 경배와 찬양 ..... 다 함 께  
목도 ..... 로마서 12:9~11 ..... 인도자
- ※ 사도 신경 ..... 다 같이  
임재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 다 같이  
십계명 ..... 출애굽기 20:1~17 ..... 인도자/회중  
대표기도 ..... 임명숙 부장님  
성경봉독 ..... 창세기 37:2~4, 18~35 (구 140) ..... 인도자/회중  
말씀인도 ..... 성경 속의 위대한 왕따들 ..... 한승훈 목사님  
결단의기도 ..... 다 함 께  
광고 ..... 한희락 학생회장  
봉헌찬송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 다 함 께  
봉헌기도 ..... 한성결 예배부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 성경 공부 (2부)

2부 오후 5시

인도: 임명순 사모님

- 공과교재 ..... 다 같이  
성경본문 ..... 창세기 37:18~35 ..... 인도자/회중  
주제 ..... 스타에 열광하는 당신 ..... 다 같이  
다과 나눔 ..... 다 함 께  
환영/축복 ..... 축복송 ..... 다 함 께

## 금주 성경 읽송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9~11)

## 말씀 노트

(1) 따돌림을 당한 요셉

(2) 따돌림도 죄가 되나요

(3) 예수님의 새 계명

## 십계명

-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가 섬기지 말라
-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 6 살인하지 말라
- 7 간음하지 말라
- 8 도둑질하지 말라
-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신앙의 양기 - 스타와 뉴트브에 열광하는 시대

따돌림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해요. 개인이 개인을 가해하는 행위와 집단이 개인을 가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죠. 일본의 이지메는 가해자 집단인 경우가 많아요.

따돌림은 '왕따', '이지메', '무라하치부' 등으로 표현 되는데, 199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일본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을 사용했지만, 1997년 이후에는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돌림'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왕따'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왕따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왕따는 인격적인 살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따돌림은 사랑의 결핍과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는 특권이나 설득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이예요.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요일 4:20-21).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관심 갖고 도와주는 생명 살리는 친구가 되기로 해요.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원제: 옥합을 깨뜨려)

박정환

D A/C# Bm F#m/A G E7/G# A A7/B-C#

내 게 있 는 향 유 옥 합 주 게 - 가 저 와

D A/C# Bm F#m/A G A7 D (F#m/C#)

그 밭 위 에 잉 맛 추 고 깨 트 - 립 니 다 Fine

Bm A G F#m/A G E7/G# A sus4 A7

1. 나 를 위 해 험 한 산 경 오르 - 션 그 밭  
2. 나 를위 해 섬 자 가 에 달 리 - 션 그 밭  
3. 주 님 다 시 이 땅 위 에 잉 하 - 션 그 때

D A/C# Bm F#m/A G A7 D D.C. Fine

걸 음 마 다 크 션 사 랑 새 겨 - 놓 았 네  
훈 련 피 로 나 의 죄 를 대 속 - 하 션 네  
주 의 크 션 사 랑 으 로 날 받아 주 소 서

Copyright (C) 박정환 . Used by Permission.